

# 建築教育의 目標

李 海 成

本稿는 韓國建築家協會 78年度建築討論會 基調論文입니다.

〈1〉

Norberg-Schulz는 建築教育은 다음 아닌 建築을 가르치는 것에서부터 出発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것이 成功의 으로 実践된 적이「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吟味하려면 「教育」이라는 것, 「建築」이라는 것, 또 「建築教育」이라는 것을 問題삼게 됩니다.

教育은 極히 一般的으로 말해서 人間이면 어느 누구이고 間에 그 人間性을伸張 發展시키고 人間性을 完成하는데 必要한 모든 것을 주고 얻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教育作用을 하고 있는 것은 公的 教育体系인 学校뿐만 아니라 社會속의 여러 他 教育機關도 包含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言及하려는 教育은 狹意의 으로 限定하려고 합니다. 그 까닭은 지금 対話を 나누려는 教育問題는 그 自體가 目的의이고 意圖의인 教育에 関한 問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뜻을 前提로 할 때 教育을 우리는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具体的으로 定義할 수 있습니다.

即 教育이란 知識, 能力, 技術, 價値의 意圖의인 또 目的의인 創造와 啓發 或은 伝達입니다.

大學은 이러한 教育을 하는 公的 教育体系中에서 上位機關에 属합니다.

大學教育에서는 知識의 基盤을 다루면서 그것을 概念化하고 說明하며 立証할 수 있는 方法을 가르치는 特有한 機能을 가지고 있습니다.

勿論 이것은 社會参与機能과 研究機能과 더불어 大學의 三大機能中의 하나입니다.

大學은 現時點에서 볼 때 技術과 社會가 急速하게 變化되면서 그 機構가 複雜해지는 한편 知識의 量이나 情報의 量이 增加擴大되는 現實에 直面하여서 高度로 啓發되고 訓練을 쌓은 知識人을 養成하고 輩出할 責任을 지고 있습니다. 教育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要件이 필요합니다.

即 知識에만 致重하여 知的이고 分析的 教育內容을 為主로 할 때 全人的教育은 欠陷을 가지게 됩니다.

또 이와 反對로 反 主知主義의 主情의인 教育內容을 為主로 하면 感傷的 愚를 犯하게 되며 이것은 系統的이고 規律的인 知的努力을 否認하게 됩니다.

知性과 感性의 調和가 全人的教育을 為解 必要합니다.

한가지 더 갖추어야 될 要件은 行動입니다. 行動이 더 불어지지 않은 知識은 쓸모가 없습니다. 感情 亦是 行動이 隨伴되지 않으면 創造에 이르지 못합니다.

道徳的 行動이 人間完成을 이루게 합니다.

高度의 知識를 갖추었다고 해도 豐富한感情을 가졌어도 行動이 隨伴되지 않거나 不道徳의 때 教育의 効果는 疑心스러워 집니다.

以上 말한대로 教育이 人間性의 伸張 發展과 나아가서는 人間性의 完成을 위해선 必要한 것이기에 知性 뿐 아니라 感性이나 行動이 세 가지가 合體가 되어야 所期의 効果를 얻을 수 있습니다.

知와 美와 道徳이 合쳐진 教育의 像이 바로 全人間教育의 像입니다.

社會가 必要로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教育을 받은 사람이며 단지 知識만을 많이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建築教育을 論하려 하면은 蛇足같은 教育論을 이야기하게 되어 안되었으나 오늘날 学校教育의 危機는 教育의 像이 定着되지 못한 데서 그 権威가 衰失되어 否定당하고 있는데 原因이 있습니다. 大學教育이나 그것을 맡고 있는 教授陣이 学問의 으로나 道徳의 으로 自信感을 잃고 動搖하고 있는 理由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教育은 初等教育段階에서부터 優劣競爭이나 試驗準備의 強調로 그 自體로 비뚤어진 것으로 만들었으며 大學教育조차도 知識伝達이 全部인 것 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即 知識人을 만들어내는 일에 그치고 教育받은 사람을 만들어 내려는 뜻이 動搖되고 있는 것을 否認할 수 없습니다.

科目内容이 時代의으로 뒤떨어졌다든지 知識이 老朽化된 것을 問題삼기 前에 教育像의 安着이 先行되어야 이 動搖를 克服할 수 있습니다.

假令 몇 가지 問題点을 指摘해 본다면 科目別로는 새로운 理論이 깊이 있게 学生들에게 伝達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冷情히 反省해 볼 때 各 學問의 要素를 相互 結付시켜 주는 일에는 効果를 못 얻고 있으며 이것은 檢討되어야 할 問題中의 하나입니다. 또 더욱 重要한 일은 学校에서 가르치는 知識과 學間의 方法이 將次学生들이 人間으로 發展해가는 過程과 聯関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知識과 行動間의 明白한 連結과 教室속에서의 知識과 教室外에서 営為되는 生活間의 聯関性이 늘 教育課題를 通해서 맺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 問題 亦是 大学教育에서 檢討되어야 할 宿題입니다. 나는 建築教育도 이와 같은 教育의 一般的 目標에 基礎를 두어서 생각해 볼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실마리가 풀릴것 같읍니다.

## 〈2〉

나는 教育의 窮極的 目標가 人間性의 伸張 發展과 그 完成에 있다는 主唱을 그대로 建築教育을 생각하는 基礎로 삼으려고 합니다.

人間은 原始의 狀態에서부터 人間自身을 表現해 낼 수 있는 새로운 方法을 繼續的으로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人間만이 가진 創意的 特徵입니다.

나는 人間이 人間自身을 表現해 놓은 것 中에서도 가장 完全한 것이 建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建築은 그것이 지나간 時代의 것이든 現代의 것이든 現代의 또 어느 地域 어느 民族의 것이든 그것을 통해 그 時代 그 地域의 人間의 人間生活을 알게 합니다. 그것은 人間이 建築의 営為를 通해서 自己自身을 建物로서 잘 表現해 놓았던 까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歷史過程속의 人間像과 建築像是 直接的 聯関性을 맺고 있는 것이라고 解釈하게 합니다.

即 全體의 人間性이 建築의 空間 - 全體的建築 - 으로 表現되고 形成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建築의 空間의 形成과 比較되어 마땅할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論理的으로 받아 들여 진다는 「全體的建築」의 完成이라는 것이 마치 全體의 人間性의 伸張 發展과 完成과 같이 知性과 感性과 行動의 合體로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建築教育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이 「全體的建築」이라는 概念을 理解시키는 것이 重要하다고 봅니다.

첫머리에서 引用한 Schulz의 말中 「建築」이라고 強調한 뜻은 바로 이 「全體的建築」을 뜻하는 것입니다.

Schulz는 이것을 建築의 全體性(Totality)이라고 表現하고 있습니다.

建築教育의 目標는 이 「全體的建築」으로 綜合할 수 있는 能力を 갖추어 주는데 있습니다.

우리는相當한 努力を 傾注하고 있으나 아직도 抽象의 Idea나 計劃 或은 Technic의 斷片的 側面만을 가르치는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各 科目이 全혀 고립된 狀態로 教授되고 있습니다.

가령 大学의 全學年을 通해서 構造도 배우고 造形도 計劃도 배웠으나 従來 建築을 모르고 建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르는 채 学校를 卒業하는 境遇도 있습니다.

이것은 建築教育의 教科課程속에 全體的建築을 理解시키려는 意圖의 뜻이 欠如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科目 서로間의 連結조차도 企圖되고 있지 않은데 原因이 있습니다.

設計時間을 通해 綜合하는 能力이 키워지고 이 過程에서 建築의 全體像이 發見되어야 하는데 設計課題의 内容에서부터 이 막연한 期待가 빛나고 있다는 것을 實感합니다.

더우기 오늘날의 建築家의 役割은 単一課題에 対한 解答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将来 그가 遭遇 있는 世界의 複雜한 여러 問題에 応答할 수 있는 資質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建築教育에서 주어진 課題에 対한 解答보다는 問題의 發見이 더 重要하다고 結果의 優劣評價보다는 過程이 더 重要한 것입니다.

科學的 知識을 基礎로해서 課題와 情報를 分析的 方法으로 处理하고 다른 한편 여기서 얻어지는 많은 可能性을濃縮하여 綜合할 수 있는 能力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또 한번 다시 말하게 되지만 建築教育도 人間教育과 마찬가지로 知와 感과 行動을 一体로 하여 分析(Analysis) 綜合(Integration), 實務(Experience)의 能力を 啓發할 수 있도록 해야 全體的 建築으로 向한 教育目標가 效果를 얻을수 있습니다.

이렇게 目標를 設定해 놓아도 大学에서의 建築教育은 難題를 안고 있습니다. 建築에 関한 知識은 個人的으로 다 履修할 수 없을 程度로 広範囲합니다. 또 建築에 関係시켜야 할 情報의 量은 爆發的으로 늘고 있습니다.

拡大增加되는 知識의 量의 消化도 問題려니와 情報過剩을 处理할 概念과 理論이 欠如되고 있는 것도 問題가 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情報가 知識인 것 같이 誤認되어 科目內容에 混亂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即 講義가 单純히 情報의 伝達이 되고 学生은 褪色되어 効用이 없어진 情報를 記憶하는 愚る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問題는 建築家가 創造的 芸術家라는 古典的 定義를前提로 할 때 芸術家의 個性的 直觀力만으로 現実世界의 複雜한 社会的 活動의 諸現象속에서 要求되는 建築의 일을 個人的 責任下에 处理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다른 한편 建築家는 芸術家라는 定義가 修正되어 建築活動이 여러 專門家들의 技術的 分担形式으로 進行된 것을 編成 綜合하는 것으로서 建築家는 그 Team의 一員으로 活動하는 것이라면 建築家로서의 生命을 살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建築課題를 個個人的 責任下에 個性直觀力만으로 处理할 수 있는 時代는 아닙니다.

그리기에 建築家는 마치 交響樂團의 音樂指揮者와 같은 役割을 하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役割 亦是「全体的 建築」으로 向한 것입니다.

樂譜와 여러 樂器를 動員 演出해서 聽衆 全体에 翻訳해 내듯이 建築家도 計劃이나 여러 要求를 여러 協力者를 指揮해가며 하나의 設計概念으로 翻訳하는 役割을 하게 됩니다.

이 指揮者的 建築家, 総合하는 能力を 가진 建築家를 教育해 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 〈3〉

Boudon의 말을 빌리며는 「建築空間은 事前에 思考되고 어떤 尺度에 依해서 計測되어 統一되어 진 것이다」라고 말하고 또 「建築的 當為라는 것은 建築家의 精神的 空間을 具體的 空間으로 移行시키는 일이라고 보고 있으면서 建築家들의 精神的 空間研究는 建築學에서 不可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尺度는 그것이 計量的 크기이든 視覺的이나 審美的 크기이든 또 心理的 크기이든 複合的 関聯에서 計測되는 基準입니다.

이 말에 依하여는 그것이 具體的 空間으로 化하기 前에 思考된 精神的 空間이 前提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도 잠깐 言及했지만 이 建築的 空間의 統一性은 空間의 編成作業에서 여러 얇은 可能性을 濃縮해야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建築的 當為는 思考와 實踐의 再段階를 거쳐서 概念的 構想作用이 具體化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建築教育을 通해 統一의이고 総合의인 能力を 啓發하려는 理由가 여기에 있습니다.

勿論 充分한 理論的 眼目만 가지고는 建築education이 끝나지 않습니다. 複合的 課題를 놓고 여러 可能性을 濃縮하여 具體化시키며 解決해내는 創造的 能力은 訓練을 통해 發展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建築education의 難題를 改善해 보려는 企図는 Gropius에 依해 Bau Haus에서 始作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Bau Haus에는 教育原則을 Werklehre와 Formlehre로 나누어 놓았고 課題를 풀 때 이것이 Collective work of Art라는 概念을 目標로 하여 統合되고 協同할 것을 強調하였습니다.

Tomas Maldonado가 指摘하였듯이 Bau Haus의 教育原理가 学生 個個人의 自由스런 自己表現 能力培養에 至重하였던 것이어서 지금에 와서는 現実社會의 諸課題를 解決하는데 그러한 個性的直觀力만으로는 適應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問題의 正確한 分析 方法을 가르치고 그 解決方法을 科学的으로 教育하자는 主唱입니다.

즉 建築을 個個人的 趣向이나 任意의 構想에 맡길 것이 아니라 人間社會에 関한 知識에 基礎를 둔 계획을 할 수 있도록 教育되어야 한다고 主唱하고 있습니다.

勿論 機械產業의 生產 方法이 現実化되어진 形態에서 手工芸의 訓練이 必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疑問이 생기며 또 現世界의 複雜한 問題가 科学的 方法을 빌리거나 專門家들의 協同 없이 解決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Gropius도 建築家의 役割이 調整에 있다고 強調했고 이것이 創造的 能力에 联関된 協同에서 얻어진다고 主唱한 것으로 보아서 Bau Haus의 教育原理가 全的으로 잘 못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拡大된 建築 全体 分野를 뒷 받침할 科学的 理論의 基礎가 없었던 原因이 Bau Haus의 教育方法을 그 以上 發展시키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날 建築에서는 限定의이고 単一課題를 풀 수 있는 原理가 아니고 모든 建築問題를 다룰 수 있는 包括的 原理가 必要한 것입니다. 이래야만 理論과 實務가 融合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먼저도 말했지만 이 包括的 原理를 基礎로 하고 学生들에게 全體的 建築을 理解시키면서 思考와 實踐을 通해 精神的 空間을 具體的 空間으로 化할 수 있는 創造的 能力を 길러주는 것이 建築education입니다. 합당치 않은 말 같으나 多面的 人間이 될 能力이나 意志가 없으면 未熟한 建築家라는 呼称을 들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教育上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고민은 바로 教科課程에 歷歷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 〈4〉

B. Grad라는 사람은 그의 著書 "Adventure into Architecture" 中에서 建築家에는 3 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스스로 未来에다 自身을 位置시켜 놓고 展開되는 社会的 文化的 技術的 環境과 関聯하면서 장래에 있을 建築의 發展方向을 내다볼 수 있는 革新者로서의 建築家이며,

둘째는 創造에 投身할 수는 없으나 創造라는 일을 알고 包括的으로 그 一部나 全部를 直接的 環境속에 實現시킬 수 있다고 意識하고 있는 実務家로서의 建築家이고,

세째는 建設企業이나 政府, 教育機關 혹은 建築家가 必要한 企業내에서 볼 수 있는, 設計라는 創造的 課程에는 従事하고 있지는 않으나 實務의 局面에 깊이 関係하고 있는 建築家로 나누어 있는 建築家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은 現社會에서 모든 建築家가 真實로 創造의 일 수 없으며 다 藝術의 일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먼저도 말했듯이 이 社會가 建築家에게 要求하고 있는 것은 多目的 人間으로서의 能力인 것 같습니다.

美的 直觀力도 있어야 하고 優秀한 能力으로 계획할 수 있는 知識도 있어야 하고 Consultant로 여러 分野를 調整할 知識도 가져야 하며 技術뿐만 아니라 財政, 經濟, 社會, 心理 等 諸般 知識을 갖추어야 하는 그런 처지에直面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建築家의 職務가 拡張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高度의 管理機能이나 運營技術까지도 담당할 것을 要求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職能을 갖추려면, 첫째 概念的 思考를 다른 사람이 直接 理解할 수 있는 圖形으로, 模型으로 만들 能力を 갖추어야 합니다. 이 能力이 없으면 建築分野에 서 장래성이 없습니다.

또 建築家라는 職能이 環境을 形成하는 일인 까닭에 이 職務의 周囲에서 進行되는 모든 일을 잘 알아야 하는 義務가 있다는 것을 認識하여야 합니다. 특히 自己職務에 関한 文獻에서 늘 새로운 것을 찾고 뒤떨어지지 말아야 하고 設計가 公共의 安全性이나 健康복지에 関係되는 일인 까닭에 職務를 實際 執行할 資格을 얻기 前에 理論的 教育을 實際的 經驗으로 補充되어야 합니다.

바람직스런 建築教育은 이상 말한 「建築」을 가르치는 일을 짜임새 있게 實現해 가는데 있습니다.

漢陽工大教授